

# 합성수지 · 필름 업계현황

경제와 함께 성장을 이루는 석유화학산업은 1994년부터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미국, 일본 등지에서 석유화학공장의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 합성수지의 경우는 그동안 10%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화학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1995년에는 극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어 수요는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듯 합성수지가 둔화된 이유는 지난해 높은 가격이 지속됨에 따라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것과 관련 수요업체들이 재고물량을 축산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소비도 상당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1. 95년 현황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은 최근 수년간 생산능력이 확충되고 업계에서 해외시장에 적극 나섬으로써 매년 2배씩 늘어나는 대폭적인 성장을 비롯하였으며 95년도에는 전년비 18% 증가한 2,964천톤을 수출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지난해 합성수지는 6,155천톤을 생산하여 94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수출은 14.8% 증가한 2,670천톤을 수출했다.

품목별로보면 LDPE(LLDPE, EVA 포함)가 1,195천톤을 생산, 533천톤 수출, HDPE가 1,235천톤을 생산하여 584천톤 수출, PP가 1,612천톤을 생산하여 841천톤 수출, PVC가 898천톤 생산하여 135천톤을 수출했다.

특히 폴리올레핀의 경우 95년 생산량의 48%를 수출하여 내수 의존형 산업을 탈피하고 있고 해외시장의 변화가 국내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폴리올레핀 국내시장 자체가 해외시장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어 해외시장 동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수요는 규모의 증가를 크게 기대할수 없으므로 해외시장에 대한 각사의 관심이 커질수 밖에 없다.

한편 세계 폴리올레핀 수출시장으로 부각된 중국, 아세아 지역에서 이미 한국산의 수입비중이 최고를 점하고 있어 주요 수입선 및 수출회사가 한국업계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95년초 중국등 수입국으로부터 폴리올레핀 수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반발이 강하여

일시 수입규모가 축소되었으나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특수로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인상되어 상반기중에는 최고의 호황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내 석유화학제품은 그동안 신증설공장들이 완공, 가공에 들어감에 따라 매년 큰폭의 증가

를 나타냈으나 95년 하반기 일부업체의 공장사고 등 내적요인이 발생했다.

## 2. 96년 전망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전반적인 경제성장

(표 1) 합성수지 일반 현황(95년)

PRODUCT		1	2	3	1/4Q	4	5	6	2/4Q	상반기	7	8	9	3/4Q	10	11	12	4/4Q	하반기	총계
LDPE (L-LDPE, EVA포함)	생 산	102,105	85,430	97,310	284,845	103,892	97,582	96,016	297,490	582,335	103,817	92,859	97,662	294,337	103,734	107,130	107,921	318,785	613,172	1,196,487
	내 수	49,907	40,651	50,222	140,780	49,364	54,347	54,031	157,742	296,522	53,624	52,595	51,437	157,658	56,483	51,526	52,761	158,770	317,426	815,948
	수 출	33,440	47,629	55,542	136,811	46,030	44,877	44,340	136,247	271,858	33,705	35,773	52,971	122,449	43,380	50,072	45,953	139,405	261,854	533,712
	총하계	83,347	88,280	103,764	277,391	95,394	99,224	98,371	292,989	570,380	87,329	88,368	104,408	280,105	98,863	101,598	88,714	299,175	579,280	1,149,660
	수 입	3,021	2,658	4,152	9,831	3,494	3,297	4,100	10,891	20,722	3,135	3,101	2,639	8,875	3,244	2,822	2,856	8,922	17,797	38,519
	수 도	52,928	43,309	54,374	160,611	52,858	57,644	58,131	168,633	319,244	56,759	56,696	54,076	166,531	58,727	54,348	55,617	168,892	339,223	654,467
재 고	66,128	63,936	73,384	272,32	72,828	64,975														
HDPE	생 산	112,961	105,157	109,923	328,041	112,210	100,660	109,036	321,806	649,947	99,544	93,864	95,622	289,030	82,691	97,627	115,863	296,181	585,211	1,235,158
	내 수	51,597	46,750	53,027	151,374	61,895	58,155	58,282	178,332	329,706	49,487	54,718	57,121	161,328	58,830	58,289	58,599	176,698	337,024	686,730
	수 출	37,554	63,686	76,223	177,463	56,977	52,476	44,251	152,704	330,167	30,655	27,725	43,027	101,407	43,227	49,263	59,960	152,470	253,877	584,044
	총하계	89,151	110,436	129,250	328,837	117,872	110,631	102,533	331,036	659,873	60,142	82,443	100,148	262,733	102,057	107,532	118,719	328,168	590,901	1,250,774
	수 입	828	535	550	1,813	663	452	722	1,837	3,750	432	760	399	1,591	446	408	567	1,421	3,012	6,762
	수 도	52,425	47,285	53,577	153,287	62,558	58,607	59,004	180,169	333,456	49,919	55,478	57,520	162,817	59,276	58,677	59,166	177,119	340,036	673,492
재 고	107,831	102,991	82,109		77,302	66,256	74,132													
P P	생 산	140,116	130,816	133,335	404,287	134,646	126,001	134,850	395,497	799,784	134,851	127,497	126,481	389,829	136,796	140,680	146,578	424,024	812,853	1,612,617
	내 수	61,541	51,226	59,602	172,369	65,823	69,405	57,513	192,741	386,110	63,299	63,719	58,185	182,163	60,664	61,874	66,337	188,885	371,028	736,138
	수 출	66,016	84,773	83,374	236,163	73,666	67,368	58,304	196,338	435,501	49,931	69,795	61,682	80,211	85,708	79,825	244,744	406,406	840,506	
	총하계	127,557	135,999	144,876	408,532	139,489	136,773	115,817	392,079	800,811	108,255	113,880	124,920	343,825	140,865	147,882	145,162	433,699	777,434	1,578,045
	수 입	996	1,016	1,187	3,199	939	942	783	2,664	5,863	935	830	1,192	2,957	1,225	1,582	1,345	4,152	7,109	12,972
	수 도	62,537	52,240	60,789	175,568	66,762	70,347	58,296	194,605	370,973	64,194	64,549	56,377	185,120	61,679	63,667	67,682	193,017	378,137	749,110
재 고	107,027	104,490	91,874		87,066	78,178	92,184													
PVC	생 산	67,147	69,352	75,434	211,933	75,111	80,105	74,173	229,389	441,322	74,129	80,729	67,441	222,299	78,026	78,407	78,417	234,850	457,149	898,471
	내 수	55,438	59,736	65,373	180,547	67,032	65,657	67,861	200,550	381,097	61,386	61,084	59,940	182,410	65,008	64,221	51,350	180,579	362,988	744,086
	수 출	9,199	7,852	10,720	27,771	7,025	5,894	6,795	19,854	47,625	5,449	14,776	17,585	37,810	16,017	17,296	16,346	49,539	87,469	135,094
	총하계	64,537	67,588	76,093	208,318	74,237	71,551	74,616	220,404	428,722	66,835	75,860	77,525	220,220	81,025	81,517	67,696	230,238	450,458	879,180
	수 입	3,805	4,449	4,746	13,000	2,395	3,495	2,863	8,783	21,753	3,826	3,377	5,839	13,042	9,744	7,118	6,126	22,988	36,030	51,783
	수 도	59,243	64,185	70,119	193,547	69,427	69,152	70,724	209,303	402,850	65,212	64,461	65,779	195,452	74,752	71,339	57,476	203,567	399,019	801,869
재 고	23,892	25,653	24,997		25,871	34,426	33,963													
P S (GP&H)	생 산	46,103	43,704	46,911	136,718	44,958	39,305	43,487	127,740	264,468	45,477	41,570	49,349	136,396	55,995	54,160	57,557	167,912	304,391	588,776
	내 수	25,230	25,300	26,401	77,031	25,769	24,042	20,639	76,450	147,481	21,897	20,090	24,289	66,276	24,477	21,534	24,722	140,998	288,479	
	수 출	20,114	21,369	20,568	62,451	19,448	13,333	11,020	43,701	106,152	20,957	27,131	31,547	79,635	28,301	33,522	29,810	91,633	171,266	277,420
	총하계	45,344	46,769	47,979	139,489	45,117	37,376	31,659	114,151	253,833	42,854	47,221	55,836	145,911	52,778	60,333	64,344	166,356	312,566	555,899
	수 입	1,023	1,390	1,340	3,753	1,029	1,064	650	2,743	6,496	1,304	1,953	1,561	4,818	1,177	1,233	1,553	4,053	8,471	15,367
	수 도	26,253	26,790	27,741	80,784	26,798	25,106	21,289	73,193	153,977	23,201	22,043	25,850	71,094	25,654	23,024	25,087	78,775	149,889	303,846
재 고	30,047	28,507	29,772		25,505	27,337	40,891													
E P S	생 산	22,488	21,422	25,009	68,819	25,473	19,856	23,734	69,063	137,982	20,126	21,725	21,714	63,665	24,432	27,771	22,101	71,310	134,875	272,857
	내 수	13,465	17,597	18,930	49,992	19,710	18,952	18,982	57,854	107,646	16,353	17,370	17,854	51,587	19,776	18,602	15,207	53,385	105,172	212,814
	수 출	7,167	8,002	6,811	21,720	5,886	1,735	2,199	9,820	31,600	4,325	4,295	4,911	13,531	5,012	5,943	4,776	15,721	29,262	60,862
	총하계	20,632	25,599	25,441	71,772	25,596	20,697	21,181	67,474	139,246	20,878	21,685	22,775	65,118	24,748	24,545	19,983	69,316	134,344	273,850
	수 입	5	37	1	43	45	0	5	50	93	102	0	93	195	17	42	34	83	298	181
	수 도	13,470	17,634	18,931	50,035	19,755	18,962	18,987	57,704	107,739	16,455	17,370	17,957	51,782	19,793	18,644	15,241	53,678	105,460	213,199
재 고	14,461	10,291	9,749		9,626	8,777	11,330													
P S (EPS포함)	생 산	68,591	65,126	71,920	205,637	70,431	59,161	67,221	196,813	402,450	65,603	63,295	71,063	199,961	80,027	79,537	79,658	239,222	439,183	841,833
	내 수	38,695	42,997	45,331	127,023	45,479	43,004	39,621	128,104	255,127	38,250	37,480	42,153	117,963	44,263	45,913	38,741	126,307	246,170	601,297
	수 출	27,291	29,371	27,579	84,254	25,234	15,098	13,219	83,921	137,752	25,292	31,426	36,498	93,169	33,513	39,469	34,598	107,369	200,530	338,282
	총하계	65,976	72,368	72,910	211,264	70,713	58,072	52,840	181,825	392,879	63,542	68,906	78,611	211,029	77,888	84,778	73,337	235,871	446,708	939,579
	수 입	1,028	1,427	1,341	3,795	1,074	1,064	655	2,763	6,588	1,406	1,953	1,654	5,913	1,194	1,365	1,587	4,148	8,159	15,748
	수 도	39,723	44,424	46,672	130,819	46,553	44,068	40,276	130,887	261,716	39,656	39,413	43,807	122,876	45,447	46,678	40,278	132,453	255,329	517,045
재 고	44,508	36,888	35,521		35,131	36,114	52,221													
ABS	생 산	36,562	33,639	36,870	108,871	38,406	34,546	38,990	111,942	220,813	37,144	36,422	38,897	114,463	44,008	44,384	41,696	130,068	244,551	465,364
	내 수	17,637	17,789	19,435	54,861	19,135	18,138	18,697	56,17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는 밝게 전망할수 있다. 또한 석유화학 제품의 국제가격이 95년 11월 들어 보합세에서 다시 상승세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회복과 함께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수요는 내수 증가세의 진정에 따라 95년에 비해 6%증가가 예상되며 품목별로는 LDPE가 7%, HDPE 5%, PP 7%, PS 5%, ABS 7%, PVC 7%의 증가가 예상된다.

수출은 국내 시설능력의 일부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시장의 자금화 진전과 성장률 둔화, 공급능력의 한정과 주요수출시장인 아시아 국가들의 자금화 진전, 국내 생산능력의 한정등으로 95년 수출량보다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기대되며 합성수지는 2,624천톤 생산으로 전년비 5%증가가 예상된다.

국내 합성수지 수요는 최근 몇년동안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합성수지에 대한 규제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합성수지의 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합성수지업계는 합성수지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합성수지 사용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전체시장이 95년 하반기부터 침체되고 가격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96년도에는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을 기대키는 어렵지만 대내외여건의 급변이 없는 한 대부분의 공장들이 95년에 이어 높은 조업률을 유지하는등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년도별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단위: 1,000톤)

구분		'93	'94	'95	성장률(%)	
					94/93	95/94
합성수지	생산	5,363	5,855	6,155	9.2	5.1
	수입	185	155	142	△16.2	△8.3
	수출	2,277	2,326	2,670	2.2	14.8
	내수	3,271	3,684	3,627	12.6	△1.5
합성원료	생산	2,020	2,128	2,635	5.3	23.8
	수입	852	999	1,086	17.2	8.8
	수출	122	87	328	△28.7	277.2
	내수	2,750	3,039	3,393	10.5	11.6
합성고무	생산	236	263	272	11.4	3.5
	수입	39	41	26	4.1	△35.5
	수출	98	112	91	13.9	△18.6
	내수	177	192	208	8.5	8.1
계	생산	7,619	8,246	9,063	8.2	9.9
	수입	1,076	1,194	1,254	10.9	5.1
	수출	2,497	2,525	3,089	1.1	22.3
	내수	6,199	6,915	7,228	11.5	4.5

## OPP필름시장 현황 및 전망

### 1. 서론

70년대 생산을 시작한 이래 계속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증설이 계속되었던 OPP필름업계가 최근 증설, 신규업체의 참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채비를 갖추고 있다.

94년도까지만 해도 필름가공업체인 서통, 삼영, 율촌, 화승, 대일, 영광이 시장을 독점해오다 94년 대림이 영광화학을 인수하면서 원료업체가 신규참여하는 기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외에 새한미디어도 97년부터 생산할 뜻을 밝히고 준비에 들어가 그간 큰 변화없이 성장해온 OPP필름업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 2. 국내 수급동향

95년 현재 국내 OPP 총 시설능력은 13만톤이며 실제생산량은 12만톤정도로 보여진다. 여기서 내수는 6만8천톤, 수출은 3만5천톤이다.

95년하반기 이후 호황을 누리고 수출거래선도 늘어 수급밸런스가 타이트해져 균형을 이루었으나 올 6월초부터 활황이 꺾여 수출이 줄고 내수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더욱이 OPP업계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인데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 올 하반기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중국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올 하반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제조업체 현황

### 3-1. 화승인더스트리

종합포장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있는 화승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2호기와 95년 2사분기에 증설한 3호기를 포함하여 3대의 OPP필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식품포장용, 앨범용, 쇼핑백, 종이합지용으로 주로 판매하고 있는 화승은 대당 월 천톤인 설비캡과의 85%를 생산하여 미주 및 전세계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화승은 수출과 내수비가 3.5:6.5이며 년 매출이 약 500억으로 국내 시장의 22%를 점유하고 있다.

화승은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 질것에 대비고품질의 제품으로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수출의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 3-2. 울촌화학

3대의 설비로 년 22000톤을 생산하고 있는 울

촌화학주식회사는 확보하고 있는 국내 수요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에 두는 비중은 그다지 크게 두고 있지 않고 년 1억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OPP생산 업체들이 시장이 어려워질것에 대비하는 것에 반해 울촌은 농심이라는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 식품포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울촌의 경우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을 감안, 더이상의 증설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즉 수축필름등 다양한 필름개발을 추진중이다.

### 3-3. 삼영화학

5대의 설비로 년 2만6천톤을 생산하고 있는 삼영은 국내 25%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주로 저미크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의 많은 포지션을 중국시장에 두고 있는데 변수가 많은 지역이라 간혹 어려움을 겪어 동남아, 미주 등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로를 개척중이다.

### 3-4. 서통

지난해까지 6대의 설비를 보유하다 금년 3월 1라인을 중지, 자사인 필리핀 마닐라로 이전함으로써 마닐라에 2대, 국내에 5대의 설비를 갖추게 됐다.

월 2,600톤을 생산하여 내수로 1,500톤, 수출 700톤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부평테이프공장에서 자가사용 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양은 미국과 필리핀 현지에서 충당하고 있다.

서통의 OPP필름매출은 연 600억으로 국내 시장의 35~6%를 점유하고 있다.

### 3.5. 대립산업

94년 부도를 맞았던 영광화학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대립은 기존 필름업체들과 달리 원료업체로써 원료구득이나 가격경쟁력면에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어 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년간 만톤 생산이 가능한 브루크너 설비1대를 가지고 그간의 시험테스트를 거쳐 지난달부터 생산에 들어간 대립은 브루크너사의 기술지원으로 기계를 새롭게 수리했다.

기존의 계획과는 달리 월 900톤생산중 수출과 내수비율을 50:50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립은 전량생산, 전량판매를 목표로 하고있으며 고품질을 추구하기 위해 브루크너사와 기술지원계약을 맺고 각종 테스트를 거쳐 양호한 제품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립은 9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연산 15,000톤 규모의 최신 고속화기를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범용 PP필름보다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용 OPP 필름 생산에 참여하기 위해 97년도에 연산 15,000톤 규모의 2개라인을 증설기로 결정한 것 외에도 98년도에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어 연산 55,000톤규모에 이르는 대단위 OPP필름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대립은 앞으로 OPP이외에 CPP, 증착필름, 특수필름, 복합필름 생산으로 종합필름메이커로 변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고있다.

### 3.6. 새한미디어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전문제작업체인 새한미디어가 지난해 OPP사업에 참여할 뜻을 밝히고 그간 인천에 OPP전담팀을 두고 준비를 해

(표 1) OPP 필름제조업체별 생산량(95년 현재) (단위: 톤)

업 체	생산능력(년)	실생산량(년)	대수
화승인더스트리	30,000	28,800	3
서동	30,000	26,000	3
울촌	24,000	22,000	3
삼영	30,000	26,000	5
대일	10,000	10,000 이하	1

오다 오는 10월 말경, 발주할 계획이다.

브루크너사로부터 년 2만톤 생산 가능한 8m라인을 도입하여 충주공장에 설치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게 될 새한은 자체 소비물량이 많지않아 수출에 주력할 방침이며 이를위해 미국 컨설팅회사에 세계시장조사를 의뢰한바도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 한라인 설치에 이어 곧 추가로 한라인을 더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새한은 세계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 4. 결론

세계 OPP시장의 성장률은 6~7%, 국내는 10~12% 정도로 아직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있다.

지난해부터 신규업체의 참여가 확실시되면서부터 업체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데 OPP업계는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고 앞으로 더욱 그러한 경향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중국시장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특히 올한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세계적으로도 공급과잉상태이어서 업체들은 수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97년에는 신규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시기라 각 회사별 치열한 경쟁이 예상

되어 과도기가 될 것이며 98년이되면 업체들의 기계교체와 함께 수요공급이 일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품질의 제품개발과 다양한 필름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업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가격덤핑등 불공정한 행위는 배제되어야 하고 현재 중국에 치우친 수출위주에서 세계 각국의로의 수출을 넓혀가야 할것이다.

## CPP 필름 시장 현황 및 전망

### 1. 서론

연신하지 않았더라도 무연신 폴리프로필렌 필름이라 불리는 CPP 필름은 OPP 필름의 출현 이후 많은 시장을 잠식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빵포장, 증착용등으로 그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는 품목이다.

국내에 CPP 필름 생산업체는 현재 삼민화학, 삼영화학, 유상공업, 성일화학, 삼진화학, (주)서통이 있는데 95년 CPP 필름 생산은 총 2만8천톤으로 94년 3만톤에 비해 6.7% 감소했다.

여기서 내수는 95년 2만4천톤으로 94년 2만8천8백톤 대비 4,800톤 감소해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알수있다.

주로 제과, 제빵 포장에 사용되는 CPP 필름의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95년 병과류제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했던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96년 현재 국내 CPP 필름 업체별 실제 생산량을 보면 서통이 7,800톤, 삼영이 5,400톤, 삼민

이 4,800톤, 유상이 6,600톤, 성일화학 6,000톤, 삼진화학 840톤으로 총 31,440톤 정도로 공급과잉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기린화학이 상반기 월 250톤 생산능력을 갖추고 생산을 시작했으며 삼민화학이 가을에 1대를 추가할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어 지금의 어려운 시장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예상된다.

### 2. 제조업체 현황

얼마전까지 가장 많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던 삼민화학은 최근 고객이 원하는 정밀한 필름을 생산하기 위해 기량이 떨어지는 설비를 해외로 수출해 현재 CJ Japan 1대 (MOPP 생산 가능), Misuibishi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연 150~200만불을 수출하고 있는 삼민화학은 시장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개발 즉 기능성 필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를위해 올해 가을에 1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한편 삼민은 최근 레토르트용 필름을 말레이시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출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으며 앞으로 그 양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Misuibishi 1기, Egan 1기를 보유하고 있는 서통은 품종다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전략을 채택하여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중이다.

현재 Black Clawson 1대의 설비를 보유하고 그라비아 80%, 특수 필름 20% 용도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삼영화학은 지금의 10~20% 수준이던 수출을 적극 늘리고 신제품개발에 박

[표 1] CPP필름 수급동향 (95년 현재, 단위: 톤)

구분	1993	1994	1995
생 산	26,500	30,000	28,000
내 수	26,500	28,800	24,000
수 출	1,600	1,000	2,000
총수요	28,100	29,800	26,000

[표 2] 국내CPP필름 제조업체별 생산량 및 설비보유현황 (95년 현재, 단위: 톤)

구분	생산량(년)	설비보유현황
삼진화학	4,800	Egan2기, CJ Japan1기(MOPP생산가능)
삼영화학	5,400	Black Clawson 1기
유상공업	6,600	Mordern 2대, Mitsubishi 1기
성일화학	6,000	Nihon Seiko 2대
기린화학	3,000	프란트(이태리)
삼진화학	840	Nihon Seiko 1기
서통	7,800	Mitsubishi 1기, Egan 1기

주) 기린화학은 올해 상반기 도입한 설비점퍼임.

차를 가할 것이다.

Nihon Seiko 2대, Egan1대를 보유하고 있는 성일화학은 현재 내수에 비해 수출이 현저히 낮은 편이라 수출을 적극 늘릴 계획이며 상당량의 제품을 삼립식품의 빵포장에 사용하고 있어 시장확보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

Modern 2기와 Mitsubishi 1기를 보유하고 있는 유상공업은 식품포장용, 라면내포용, 레토르트용, 증착용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시장전망을 지켜보면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대형화 추세에 맞춰 설비를 증설할 계획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Nihon Seiko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삼진은 소량생산으로 100% 자체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족분을 타사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린화학은 올해 상반기에 이태리 프란트사로부터 월 250톤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도입하

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 들었다. 현재의 어려운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린은 앞으로 내수 70%, 수출 30%를 목표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3. 결론

시장에 비해 계속적으로 과잉공급되고 있어 당분간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 싶지만 CPP증착필름용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전반적으로 식품산업의 필름수요가 저조해 올해도 쉽게 시장이 호전되기는 어려워 업체들 각기 품질향상을 위한 지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기능성필름의 개발도 어려운 시장을 대처해가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 필름이 동남아제품보다 질적으로는 앞선다 할지라도 가격이 30~40%비싸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원료공급업체들이 안정된 가격으로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며 가공업체들도 무리한 증설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화기계를 최신의 기계로 교체하는 방법을 취하여 공급과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95 PET필름시장 현황 및 전망

### 1. 서론

폴리에스터필름은 포장용보다는 오디오나 비디

오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포장용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수출국인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라인을 증설하고 있어 수출의 어려움도 제기되고 있다.

95년까지는 SKC, 제일합섬, 코오롱, 서통에서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생산해 왔으나 지난해에 고려합섬이 PET 필름을 생산할 뜻을 밝혔으며 올초 OPP 필름전문업체인 화승인더스트리도 PET 필름을 생산할 것을 밝혔다.

또한 기존업체이던 제일합섬과 코오롱도 지난달 증설을 완료했거나 년내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공급과잉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 PET 필름의 규모는 연간 92만4천톤이며 성장률은 후진국일수록 매년 증가율이 18%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10~12%, 일본 5%, 선진국은 3%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2. 제조업체 현황

### 2-1. SKC

마그네틱 5대, 포장용 3대, 그래픽아트 2대, 전기·절연·전자 3대 모두 13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SKC는 포장용으로만 월 1,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SKC는 95년에 1만2천톤을 생산하여 4,200톤을 내수로, 7,800톤을 수출해 94년 1만2천5백톤 생산에 4,200톤 수출, 8,300톤을 내수로 판매한 것에 비해 약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SKC는 또한 1조2천억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2천년까지 미국에 10라인을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에 대비하여 각종 기능성 필름을 개발할 계획인데 특히 코로나 처리한제품, 후가공 접착력을 높인 제품, 증착접착력을 향상시킨 제품 등을 개발하여 시장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 2-2. 코오롱

자기용 1대, 산업용 1대, 포장용1대를 보유하고 있는 코오롱은 공업용으로는 주로 사용되는 125마이크로~150마이크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올 12월 포장용으로 2대를 김천공장에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그중 한대는 이미 시운전중이며 1대는 연내에 설치할 계획인데 이 설비는 폭이 넓고 스피드가 뛰어나며 대당 캡과는 천톤정도다.

코오롱은 포장용으로만 지난해 9,600톤을 생산하여 약 2,400톤을 내수로, 7,200톤을 수출하여 94년 9,000톤을 생산하여 2,040톤을 내수로, 6,960톤을 수출한 것과 대비해 볼 때 약간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은 국내시장은 어렵지만 동남아시아를 밝게 내다보고 내수를 30%, 수출을 70%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국내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코오롱은 올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 쉐랑에 5천달러를 투자해 현지법인으로 코오롱인나를 설립하고 연산 1만톤 규모의 폴리에스터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인나에서 생산되는 연간 3만톤의 생산량은 연평균 50~60% 늘어나는 인도네시아외에 동남아시아 지역은 물론 구미수출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듯 코오롱은 국제적 기반을 다져 수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2-3. 제일합섬**

지난달 구미 제2공장에 2라인을 증설함으로써 총 7라인을 보유하게된 제일합섬은 95년 현재 자기용 55대, 산업용 15대이며 캡파는 연간 1만톤정도이다. 또한 지난달 포장용으로 2대를 증설했는가 하면 오는 12월 포장용으로 8호기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산업용으로는 라미네이션용, 테이프용, 전선 피복용, 그라픽용, 제판용, 포장용등이 있는데 산업용중 포장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정도로 보고있다.

국내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는 제일은 내수 60%, 수출40%를 나타내고 있다.

제일은 시장경쟁력을 키우기위해 차별화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올 12월 8라인을 증설되면 대형유저와 협조체제를 이루어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유저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2-4. 서통**

브르크너기 1대로 월 400톤을 생산하고 있는 서통은 OPP필름업체로서 PET필름을 주력 판매하기 보다는 주 품목인 OPP와 함께 유저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데 의의를 두고있다.

주로 합지용으로 사용되며 250톤은 내수, 150톤은 수출을 하고 있고 증설하여 시장을 넓히기 보다는 자사의 유저들에게 PET필름을 안

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종합포장회사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반으로 삼을 것이다.

**3. 결론**

국내 포장용 PET필름의 수요는 월 900톤정도로 짐작되어 진다. 그중 SKC가 40%, 제일합섬이, 28%, 코오롱이 18% 그리고 나머지가 서통과 기타업체들이다.

여기에 올해 고려합섬이 2라인을 증설하고 연말부터 생산판매에 들어가면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업체중 코오롱이 2라인 증설, 제일합섬 1라인증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화승인더스트리도 1라인을 증설하게 되면 업계가 갖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설비증설과 신규업체 참여에 따라 자연스레 수반되는 것이 가격하락 문제인데 올해말과 내년말까지 가격변동 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 예상되며 또한 TPA,EG등 PET원료 문제도 만만치않게 나타나 가격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차지할 것이다.

PET필름은 수출의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 예상되지만 현재 전세계적으로 증설되는 추세이고 지난해만도 30여개사가 증설되었으며 증설업체는 곧 가격으로 대응해 오고 있어 수출시장도 만만치가 않다. 이에 업체들은 과잉증설을 자제하고 다른 재질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PET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만이 살아남을수 있을 것이다. ☐

[표 1] PET 필름 국내 제조 · 업체별 실 생산량

(단위:톤)

구분	93년	94년	95년
제일합섬	2,800	4,600	4,400
SKC	11,000	12,500	12,000
코오롱	7,800	9,000	9,600
서통	400	400	400

주) 1. 이 통계는 각사 생산량중 포장용만 나타낸 것임.

2. 제일합섬은 코팅용이 제외된 수치임.

이선하 기자